

보 도 참 고 자 료				
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	보도일시	2018년 3월 9일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	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물관리팀	이헌우 팀장 / 나길 사무관 044-200-2243 / 2228	
		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 상황실	서영태 팀장 / 김마루 사무관 044-201-7541 / 7534	
	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	한준희 과장 / 유재중 서기관 044-201-1851 / 1858	
		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	김구범 과장 / 김동렬 사무관	
			044-201-3624 / 4824	
배포일시	2018. 3. 9. / 총 4매			

낙동강 상주보 개방...상류 모래톱 경관 회복 기대

- ◇ 낙동강 상류 상주보, 3월 9일 오후 2시부터 개방
 - ◇ 4월 초 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는 일정으로 보 개방 진행,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
- 정부는 3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낙동강 상주보를 지하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방은 올해 말 보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개방하지 않았던 낙동강 상류의 보를 영농기 전까지 개방하여 그 영향을 관찰(모니터링)하기 위한 것이다.
 - 정부는 3월 9일 오후 2시부터 보를 개방하여 관리수위에서 목표 수위(지하수 제약 수위)까지 수위를 낮추고(해발 47m→45.3m), 약 8일간 수위를 유지하면서 개방 영향을 모니터링한 후 4월 초 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 -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중 최상류에 위치하여 상류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보 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.

- 또한,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량이 많지 않아 소폭의 개방으로도 모래톱 노출 등 하상 변화와 경관 복원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정부는 상주보 주변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재배 농가가 적고, 비영농기에 개방을 시작하여 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므로 영농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- 아울러,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·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면서 신중히 개방을 진행할 계획이다.

- 붙임 1. 상주보 수위저하 및 회복 일정.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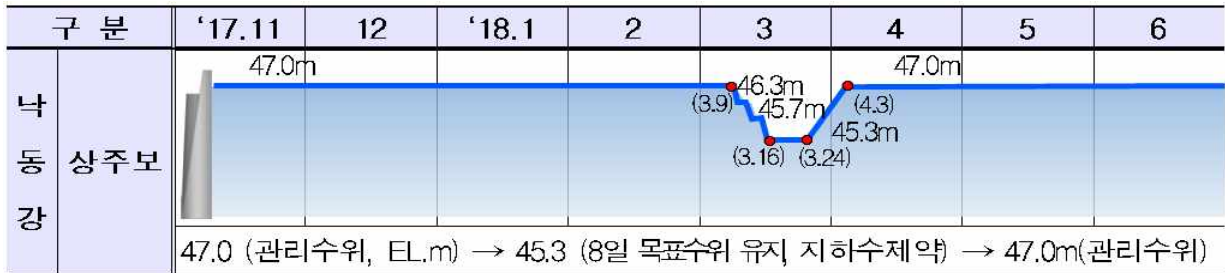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보
개방 모니터링 상황실 김마루 사무관(☎ 044-201-75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상주보 수위저하 및 회복 일정

□ 상주보 개방 및 회복 일정

- 3.9일(해빙 반영)부터 수위를 1.7m(EL.47.0→45.3m, 8.4백만^m)저하하여 모니터링 후, 양수장 가동 시점인 4.3일 까지 관리수위(EL.47.0)로 회복
- 소요일(26일) : 수위저하(8일, 2cm/시간) → 목표수위유지(8일) → 회복(10일)



※ 지하수 영향, 어패류 구조활동, 강수량 등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가능

○ 보 수위 개념



- 관리수위 :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
 - 어도 제약수위 :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 - 양수 제약수위 :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 - 지하수 제약수위 :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 - 하한수위 : 먹는 물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
 - 최저수위 :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수위
- ※ 각 수위간 상대적 위치는 보별로 다름